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부법

# EBS 중학

# 뉴런



# 국어 1

- 개념책
- +
- 실전책
- +
- 정답과 해설
- +
- 미니북

# 1 하늘은 맑건만

## 내용 연구

장소에 따른 문기의 심리 상태 변화

으스스한 골목 머뭇거리, 알 수 없는 두려움	→	밝은 큰 행길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는 기쁨
-----------------------------	---	-----------------------------

## 구절 풀이

- **손이 맞고:** 무슨 일을 하는데 의견이 맞고.
- **어머님은 어려서 ~ 너 하나야:** 문기가 처한 환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집안 환경이 안 좋아 삼촌의 집에 얹혀살고 있으며 삼촌이 문기의 유일한 보호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 **난 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 애를 쓰는데:** 문기를 바르게 키우려는 삼촌의 뜻이 드러난다. 삼촌이 책임감이 강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날말 풀이

- \* **행길:** 한길,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길.
- \* **활동사진:** 영화의 옛 용어.
- \* **환등:** 그림, 사진, 실물 따위에 강한 불빛을 비추어 그 반사광을 렌즈에 의하여 확대하여서 영사(映射)하는 조명 기구. 또는 그 불빛.
- \* **착수:** 어떤 일에 손을 댄.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함.
- \* **약조:** 조건을 붙여서 약속함. 또는 약속으로 정한 조항.
- \* **뒤뚱:** 물체가 중심을 잃고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

(가) 수만이가 있다면 좋은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보고 지내던, 온갖 가지고 싶고 해 보고 싶은 가지가지들을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문기는, 수만의 대단하고 영리한 성격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  
문기가 거스름돈을 쓰는 일에 대해 불안감을 지님.  
 “염려 없어. 나 하는 대로만 해.”

하고 머뭇거리는 **㉠** 문기 어깨에 팔을 걸고 수만이는 우쭐거리며 걸음을 옮긴다. 하긴 문기 역시 돈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없지 않은 터, 그리고 수만이가 시키는 대로 끌려 가지만 하면 남이 하래서 하는 문기의 마음속 욕망, 수만의 부추김으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됨. 것이니까 어떻게 자기 책임은 없는 듯싶었다. 그리고 **㉢** 수만이는 수만이대로 돈은 문기가 만든 돈, 나중에 무슨 일이 난다 하여도 자기 책임은 없으니까 또 안심이었다. 이래서 두 소년은 마침내 ● 손이 맞고 말했다.

▶ 문기가 와/과 거스름돈을 함께 쓰기로 함.

(나) 그래도 으스스한 골목을 걸을 때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리었으나, 밝은 큰 거스름돈을 쓰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 \*행길로 나오자 차차 다른 기쁨으로 변했다. 길 좌우편 환한 상점 유리창 안의 온갖 것이 모두 제 것인 양,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손짓해 부르는 듯했다. 드디어 그들은 공을 샀다. 만년필을 샀다. 쌍안경을 샀다. 만화책을 샀다. 그리고 문기가 공, 쌍안경을 갖게 된 경위가 드러남. \*활동사진 구경도 갔다. 다니며 이것저것 군것질도 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또 한 가지 즐거운 계획이 있었다. 조그만 \*환등 기계 한 틀을 사자는 것이다. 이것을 돌려 아이들에게 일 전씩 받고 구경을 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두고두고 용돈에 주리지 않도록 하자는 계획이다. 하고 오늘 저녁부터 그 첫 \*착수를 하자는 \*약조였다.

▶ 문기는 수만이와 함께  (으)로 물건도 사고 즐거운 계획도 세움.

(다) “이거 웬 공이냐?” / “수만이가 준 공이에요.” / “이것두?”

하고 삼촌은 무릎 밑에서 쌍안경을 꺼내 들었다.

“네.” / “수만이란 뭇하는 집 아이냐?”

문기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말이 없다. 삼촌은 숭늉을 마시고 상을 물렸다.

“**㉠** 네 입으로 수만이가 줬다니 네 말이 옳겠지. 설마 네가 날 속이기가 하겠니? 하지만 남이 준다고 아무것도 덤적덤적 받는다는 것두 좀 생각해 볼 일이지.” 「문기의 말을 믿어 주면서 잘못된 점을 훈계함.」

삼촌은 다시 말을 계속한다.

“말 들으니 너 요새 저녁두 가끔 나가 먹는다더구나. 그것두 수만이에게 얻어먹는 거냐?”

문기는 별꼴게 얼굴이 달아 수그리고 앉았다. 삼촌은 잠시 묵묵히 건너다만 보고 있더니 음성을 고쳐 엄한 어조로, 삼촌에게 거짓말을 한 죄책감과 부끄러움

“**●** 삼촌이 문기를 돌보게 된 이유가 드러남. 어머님은 어려서 돌아가시구 아버지는 저 모양이시구 앞으로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너 하나야. 성실치 못한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혹 나쁜 데 빠지거나 하면 첫째 네 꼴은 뭐구 내 모양은 뭐냐?”

● 난 너 하나는 어디까지든지 공부도 시키구, 사람을 만들어 주려구 애를 쓰는데 너두 그 뜻을 받아 주어야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삼촌은 이렇게 언하고 성득력 있는 삼촌의 훈계 → 문기가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게 함. \*뒤뚱 뚱 한번 잘못 가졌다가 영 신세를 망치고 마는 예를 이것저것 들어 말 씀하시고는 이후론 절대 이런 것 받아들이지 말라는 단단한 다짐을 받은 후 문기를 내보냈다.

▶  이/가 문기를 훈계함.

**07**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주인공이 자신이 겪은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소재들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다.

**08** (가)~(다)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문기는 거스름돈 전부를 혼자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 ② 문기는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준 수만이에게 고마워하고 있다.
- ③ 수만이는 문기의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속으로 미안해하고 있다.
- ④ 문기는 상황의 책임을 수만이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⑤ 문기는 수만이와 함께 물건을 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다.

**09** 이 글의 삼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기의 말을 믿어 주고 신뢰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군.
- ② 어려운 상황의 문기를 돌보는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군.
- ③ 문기에게 도움을 준 수만이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군.
- ④ 문기의 장래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엄격한 훈계를 하고 있군.
- ⑤ 문기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는군.

**10** ㉠을 들은 후의 문기의 심리 상태로 적절한 것은?

- ① 삼촌의 어리석음을 알고 놀라움을 느낀다.
- ② 삼촌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사실에 통쾌함을 느낀다.
- ③ 자신을 믿는 척하는 삼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 ④ 삼촌이 자신을 믿어 준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
- ⑤ 진심으로 믿는다는 삼촌의 말에 더욱더 죄책감을 느낀다.



**11** ㉡와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 ① ㉡는 거스름돈을 고깃간의 주인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 ② ㉢는 거스름돈으로 갖고 싶은 물건들을 사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린다.
- ③ ㉠는 거스름돈을 고깃간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 ④ ㉠는 거스름돈을 쓴 데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자 한다.
- ⑤ ㉠는 제안을 통해 ㉡가 거스름돈을 쓰도록 부추기는 영악한 면이 있다.

**12** | 서술형 (나)에 드러난 문기의 심리 변화를 서술하십시오.

**100점 특강**

**수만이와 삼촌의 성격과 역할**

수만이
문기가 잘못 받아 온 거스름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 보고, 사고 싶은 것을 다 사자고 제안함.
약삭빠르고 영악함.

삼촌
• 공과 쌓안경에 대해 문기에게 묻고, 문기의 대답을 믿어 줌. • 어려운 상황의 문기를 돌보며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엄하게 훈계함.
책임감이 강하고 문기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있음.

→ 수만이는 문기가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쓰도록 부추겨서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삼촌은 문기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 주어 문기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1 하늘은 맑건만

## 내용 연구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문기의 행동과 심리

- 공을 흐르는 물 위로 던져 버림.
- 쓰고 남은 거스름돈은 고깃간 안마당에 던짐.

↓  
죄책감에서 벗어난 홀가분한 기분을 느낌.

## 구절 풀이

- 그제야 문기는 ~ 어깨가 거뜬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조금이라도 수습했다는 것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뜻이다.
- 빙그레 웃는 ~ 문기는 달아났다: 자신을 괴롭히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든 수만이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담긴 행동이다.

## 날말 풀이

- \* 약을: 자신에게만 이롭게 피를 부리는 성질이 있음.
- \* 다리오금: 무릎 뒤쪽의 오목한 부분.
- \* 풍갈: (소문을) 퍼뜨림.
- \* 꺾는다: 수나 날짜를 세려고 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린다.
- \* 모종: 옮겨 심으려고 가꾼, 버 이외의 온갖 어린 식물. 또는 그것을 옮겨 심음.
- \* 붙장: 부엌 벽의 안쪽이나 바깥쪽에 붙여 만든 장.
- \* 허물: 잘못 저지른 실수.

(가) 자전거가 가고 노인이 오고 동이 뜬 그 중간을 타서 문기는 허영계 흐르는 ㉠물 위로 공을 던져 버렸다. 이어 양복 안주머니에 간직해 두었던 나머지 돈을 꺼내 들었다. 그것도 마저 던져 버리려다가 문득 들었던 손을 멈춘다. 그리고 잠시 동실동실 물을 따라 떠나가는 공을 통쾌한 듯 바라보다가는 돌아서 걸음을 옮긴다.

문기는 삼거리 고깃간을 향해 갔다. ㉡그리고 뒷골목으로 돌아가 나머지 돈을 종이에 싸서 담 너머로 그 집 안마당을 향해 던졌다.

• 그제야 문기는 무거운 짐을 풀어 놓은 듯 어깨가 거뜬했다.

문기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감동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공을 버리고 고깃간 주인집 안마당을 향해 [ ]을/를 던지는 문기

(나) “난 싫다.”

수만이는 어리둥절해 쳐다본다.

“뭐 말야? 환등 틀 사기 싫단 말야?”

“난 인제 돈 가진 것 없다.” / “뭐?”

하고 수만이는 의외라는 듯 눈이 둥그레지다가는 금세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너 혼자 두고 쓰잔 말이지.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수만이가 문기의 말을 믿지 않음. 수만이와 문기 사이의 의적 갈등의 원인이 됨.

“정말 없어. 지금 고깃간집 안마당으로 던져 주고 오는 길야. 공두 쌍안경두 버리구.”

하고 문기는 증거를 보이느라고 이쪽저쪽 주머니를 털어 보이는 것이나 수만이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친다.

영악한 수만이의 성격이 드러남.

㉢“누군 너만 못 \*약을 줄 아니?”

▶ [ ]이/가 돈이 없다는 문기의 말을 믿지 않음.

(다) 철봉 틀 옆에 정신없이 선 문기를 불시에 \*다리오금을 쳐 골탕을 먹게 하였다. 단거리 경주 연습을 하는 척 달음박질을 하다가는 일부러 문기 앞으로 달려들어 몸째 부딪는다.

그리고 으스스한 곳에서 단 둘이 만나는 때면 수만이는,

“너 네 맘대루만 허지. 나두 내 맘대루 헐 테다. 내 안 \*풍길 줄 아니? 풍길 테야.”

수만이의 협박

하고 손을 들어 \*꺾는다.

“풍기기만 하면 첫째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요, 둘째 너희 집에서 쫓겨날 것이요, 그리고 남의 걸 훔친 거나 일반이니까 또 그런 곳으로 붙들려 갈 것이요.”

하고는 또, / “풍길 테다.”

▶ 돈을 달라며 [ ]을/를 괴롭히는 수만이

(라)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엘 들어섰다. 숙모는 뒤꼍에서 화초 \*모종을 하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날 뿐 집 안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붙장 안 앞턱에 잔돈 얼마와 지전 몇 장이 놓여 있다. 그리고 문밖엔 지금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섰다. 여기서 문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았다.

숙모의 돈으로, 문기가 훔쳐 수만에게 줌.

문기에게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

“진작 듣지.”

하고 •빙그레 웃는 수만이 얼굴에다 뺨을 때리듯 돈을 던져 주고 문기는 달아났다.

▶ 돈을 [ ] 수만에게 주는 문기

**13** (나)~(라)의 수만의 행동이 이 소설의 전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문기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만든다.
- ② 문기가 잘못을 뉘우치도록 이끌어 준다.
- ③ 문기의 행동의 숨겨진 의미를 알려 준다.
- ④ 문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한다.
- ⑤ 사건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문기가 또 다른 갈등에 놓이도록 만든다.

**14** **중요** (나), (다)에 주로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다른 것은?

- ① 부모님에게 거짓말한 것을 사실대로 고백할까 고민할 때
- ② 운동 경기를 하는 중에 반칙을 하는 상대방에게 항의할 때
- ③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살찐다고 먹지 말라고 할 때
- ④ 구청에 가로등을 고쳐 달라고 요구했는데, 구청에서 못 해 주겠다고 할 때
- ⑤ 컴퓨터를 쓰려고 하는데, 언니가 숙제해야 한다며 컴퓨터를 못 쓰게 할 때

**15** (나), (다)에서 알 수 있는 수만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쾌활하고 천진난만하다.
- ② 능청스럽고 장난을 좋아한다.
- ③ 친구 사이의 의리를 매우 중시한다.
- ④ 욕심을 내세우고 영악한 면이 있다.
- ⑤ 우유부단하나 상대의 입장을 배려한다.

**16** ㉠에 담겨 있는 수만의 속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 ① 문기가 나를 정말 무서워하는구나.
- ② 문기를 더 이상 힘들게 해서 안 되겠다.
- ③ 문기한테 좀 더 약게 살라고 말해 줘야지.
- ④ 문기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충고해 줘야지.
- ⑤ 문기가 나와 돈을 나눠서 쓰기 싫은 거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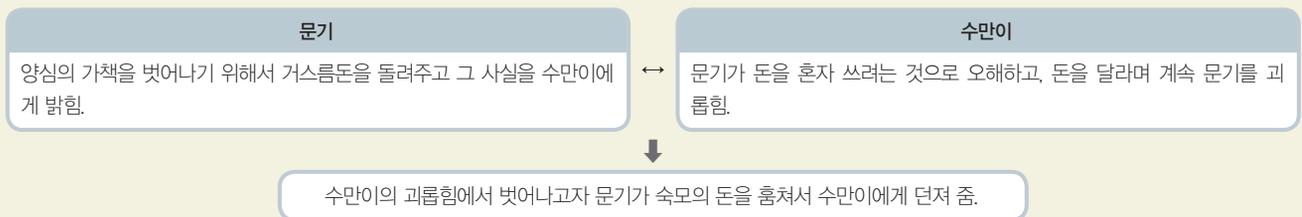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숙모의 돈을 훔친 것을 의미한다.
- ② 문기의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는 장치이다.
- ③ 수만이와의 외적 갈등 때문에 한 행동이다.
- ④ 숙모에 대한 문기의 반감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근본적으로 문기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

**18** **서술형** 문기가 ㉠, ㉡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100점 특강**

**문기와 수만의 외적 갈등과 문기의 갈등 해결 과정**



→ 문기는 삼촌의 훈계를 듣고 양심을 지키고자 거스름돈을 고깃간 마당에 던져 놓은 후, 수만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주었다고 밝힌다. 그러나 수만은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둘 사이의 외적 갈등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수만의 괴롭힘과 협박을 견디지 못한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에게 들킨다. 이러한 문기의 행동은 문기가 또 다른 갈등 상황에 놓이도록 만든다.



19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킨다.
- ② 사투리를 사용하여 인물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 ③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현장감 있게 서술한다.
- ④ 인물의 엉뚱한 행동으로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까지 다 아는 것처럼 서술한다.

20 이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것은?

- ① 점순이는 억울한 일을 당해 아랫집에서 쫓겨났다.
- ② 문기는 내적 갈등에 시달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
- ③ 숙모는 점순이가 불장 안의 돈을 훔쳤다고 생각한다.
- ④ 문기는 울고 있는 점순이를 위로하느라 밤을 새운다.
- ⑤ 문기는 작은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한다.

22 (마)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양심을 지키며 살자.
- ② 올바른 친구를 사귀자.
- ③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 ④ 물질에 욕심을 갖지 말자.
- ⑤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살자.

23 ㉠과 같은 상황에 적절한 속담은?

- ① 개밥에 도토리.
- ② 도둑이 제 발 저리다.
- ③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④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
- 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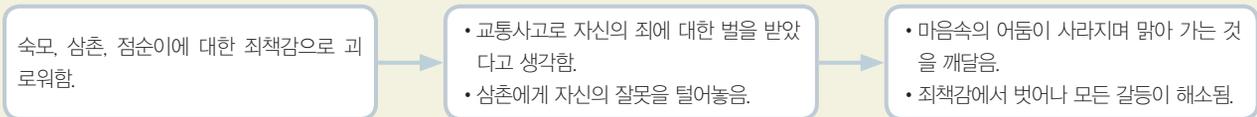
**중요**  
21 (나)에 드러난 문기의 갈등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불쌍한 처지에 대한 한탄
- ② 점순이를 때린 주인집 여자에 대한 미움
- ③ 자신을 나쁜 길로 이끈 수만이에 대한 원망
- ④ 자신이 범인으로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 ⑤ 자신으로 인해 누명을 쓴 점순이에 대한 죄책감

**서술형**  
24 ㉠과 같이 문기가 할 수 있게 된 계기를 쓰시오.

100점 특강

문기의 갈등 해소 과정



제목 '하늘은 맑건만'의 의미

'하늘'은 언제나 변함없이 맑고 푸른 모습을 지닌 소재로, 문기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으로 괴로움을 겪는 상황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다. 문기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후, 죄책감에 '하늘은 맑건만' 마음이 무거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 '하늘은 맑건만'이라는 제목은 맑고 깨끗한 하늘처럼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자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2 자전거 도둑

박완서



지문 연구

- **해제:** 이 글은 1970년대 청계천 세운 상가를 배경으로 하여 빠른 속도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어린 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어른들의 비양심적인 모습, 부도덕한 세상에 대해 되돌아 보게 하는 작품이다.
- **주제:** 부도덕한 삶의 태도에 대한 비판

## 내용 연구

### 중심인물과 배경

중심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름: 수남이</li> <li>• 나이: 열여섯 살</li> <li>• 신분: 전기용품 도매상 점원</li> <li>• 외양: 볼이 토실하니 붉고, 눈 속이 깨끗함. 제법 굵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li> </ul>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적: 청계천 세운 상가</li> <li>• 시간적: 1970년대</li> </ul>

### 구절 풀이

- 열여섯 살이지만 ~ 속이 깨끗하다.: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이지만 외양 묘사를 통해 심성이 맑고 순수한 인물임을 표현한다.
- 뚱뚱 학교라면 ~ 있으면 책이라고.: 주인 영감이 걸로는 수남이의 진학을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수남이가 일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속셈을 가지고 있다.
- “누가 뭐 ~ 들긴 쉽거든.”: 인건비를 덜 들이려는 주인 영감의 속내를 수남이를 지키려는 핑계를 들어 변명하는 부분이다.

### 낱말 풀이

- \* 다후다: 합성 섬유 의 한 종류.
- \* 혹사당하고: 혹독하게 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가) 수남이는 청계천 세운 상가 뒷길의 전기용품 도매상의 꼬마 점원이다.

수남이란 어엿한 이름이 있는데도 꼬마로 통한다. 열여섯 살이지만 볼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토실하니 붉고, 눈 속이 깨끗하다. 숙성한 건 목소리뿐이다. 제법 굵고 부드러운 <sup>수남이의 순수함</sup> 저음이다. 그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면 점잖고 떨떠름한 늙은이 목소리로 들린다.

이 가게에는 번두리 전기 상회나 전공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잦다. 수남이가 받으면, “주인 영감님이십니까?” / 하고 깝듯이 존대를 해 온다. “아, 아닙니다. 꼬맴니다.”

수남이는 제가 무슨 큰 실수나 저지른 것처럼 황공해하며 볼까지 붉어진다.

▶  면모를 지닌 수남이

(나) “왜 하필 남의 머리를 쥐어박어? 채 굳지도 않은 머리를. 그게 어떤 머린 줄이나 알고들그래, 응? 공부 많이 해서 대학도 가고 박사도 될 머리란 말야. 임자들 같은 돌대가리가 아니란 말야.” 그러면 아무리 막돼먹은 손님이라도 선생님 꾸지람에 떠는 초등학생처럼 풀이 죽어서 수남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그러고는,

“꼬마야, 그럼 너 요새 어디 야학이라도 다니니?”

하며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까지 보였다. 그러면 영감님은 딱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아니, 야학은 아무 때나 들어가나. 뚱뚱 학교라면 또 몰라. 수남이는 내년 봄에 시험 봐서 들어 <sup>수남이의 학업을 염려하는 듯 보이는 주인 영감의 말</sup> 가야 해. 야학이라도 일류로, 그래서 인석이 그저 튼만 있으면 책이라고. 허허…….”

▶ 수남이의 학업을 염려하는 듯한 주인 영감

(다) 수남이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고단하지만 행복하다. 내년 봄 — 내년 봄은 올봄보다는 멀지만 오기는 올 것이다. 그리고 영감님이 잘못 알아서 그렇지 시험 볼 때는 봄이 아니라 겨울이다. 겨울은 봄보다 이르다.

수남이는 온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밤에는 가겟방에서 숙직을 한다. <sup>수남이의 고단한 하루</sup> 피죤 <sup>수남이의 고단한 하루</sup> \*다후다 이불에 몸을 휘감고 나면 방바닥이야 차친 더웁진 잠이 쏟아진다.

▶ 수남이의  하루

(라) 점원이 적어도 세 명은 있어야 해낼 가게 일을 혼자서 해내자니 여간 벅찬 것이 아니다. 그래도 수남이는 \*혹사당하고 있다는 억울한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어쩌다 남들이 영감님에게

“꼬마 혼자 데리고 벅차시겠습니까. 좀 큰 애 하나 더 쓰셔야죠.”

① 영감님은 그런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 별레라도 씹어 먹은 듯이 이상야릇한 얼굴로 상대방을 흘려보며,

“누가 뭐 사람 더 쓰기 싫어 안 쓰나. 어디 <sup>자신의 속셈을 들킨 데 대한 불쾌함 표현</sup> ㉠ 사람 같은 놈이 있어야 말이지. ㉡ 깡패 놈이라도 「: 수남이를 위하여 케하는 주인 영감의 위선적인 모습 걸려들어 봐. 우리 ㉢ 수남이가 <sup>수남이의 순수함</sup> 물든다고. 이런 ㉣ 순진한 놈일수록 ㉤ 구정물 들긴 쉽거든.”

얼마나 고마운 주인 영감님인가.

<sup>주인 영감의 속셈을 모르는 순수한 수남이의 마음</sup>

▶ 주인 영감에게  을/를 느끼는 수남이

**01** 이와 같은 글을 감상할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 ② 갈등의 발생 원인과 해결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 ③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사실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
- ④ 언어가 가지는 음악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음미해야 한다.
- ⑤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한 삶의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

**02** (가)~(라)를 통해 알 수 있는 수남이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 ②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③ 사춘기 소년이면서 순수한 면이 있다.
- ④ 어른들의 말을 사실 그대로 믿고 있다.
- ⑤ 자신의 영특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03** 일반적인 갈등의 전개 과정으로 보아 (가)의 역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사건이 해결되면서 모든 갈등이 해소된다.
- ② 사건이 시작되면서 갈등의 원인이 드러난다.
- ③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갈등이 심화된다.
- ④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여 갈등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 ⑤ 사건이 극적으로 치달으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한다.

**04** (나)~(라)를 바탕으로 나는 대화이다. 이야기의 흐름을 바르게 파악한 사람은?

- ① 영주: 수남이는 실제로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로군.
- ② 신우: 주인 영감은 수남이의 학업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 ③ 은래: 수남이는 힘든 생활로 인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어.
- ④ 아람: 주인 영감은 수남이의 고단한 하루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어.
- ⑤ 상규: 수남이는 주인 영감의 보살핌을 받고 야학에 가게 될 거야.

**05** ㉠~㉥ 중 의미하는 바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06** (나)~(라)로 보아 알 수 있는 '주인 영감'의 성격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 조건

- '수남이'와 관련지어 근거를 서술할 것.
-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100점 특강**

**수남이와 주인 영감의 성격**

수남이	주인 영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일을 혼자 해내면서도 불평하지 않음.</li> <li>• 주인 영감이 자신의 학업을 염려해 준다고 믿고 고마워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남이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면서도 겉으로만 걱정하는 척함.</li> <li>• 수남이에게 많은 일을 시켜 인건비를 줄이려 함.</li> </ul>
순수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이기적이고 계산적임.

→ 수남이가 주인 영감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면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주인 영감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순진한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 2 자전거 도둑

## 내용 연구 '바람'의 의미

서울 사람	수남이
횡액, 먼지, 쓰레기	나무, 뿌리, 꽃망울을 깨움.
↓	↓
부정적	긍정적

## 구절 풀이

- 별안간 기온이 ~ 세차게 몰아쳤다: 갑작스런 날씨의 변화를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됨을 암시한다.
- 꼭 네간 ~ 소리로 들린다: 주인 영감의 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수남이의 마음을 서술하고 있다.
- 저런 수에 ~ 있기 때문이다: 수남이가 물건 배달을 가서 물건값을 제때에 받지 못한 일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상인들의 습성을 알게 되었음을 표현한다.

## 낱말 풀이

- \* **횡액:** 뜻밖에 당하게 되는 재난이나 액운.
- \* **생경한:** 처음이거나 익숙하지 못하여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한.
- \* **고깝게:** 섭섭하고 아속하여 마음이 언짢게.
- \* **공갈:** 공포를 느끼도록 억박지르며 울리냄.
- \* **퇴놈:** 퇴놈, 중국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

(가) 그 어느 해보다도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내년 봄이 아니라 올봄이 온 것이다. 캘린더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그런데도 그 어느 해보다도 길게 해 먹은 겨울은 <sup>겨울 주위가 오래 갈.</sup> 뭘 아직도 덜 해 먹었는지 화장한 봄날에 끼어들어 심술을 부렸다. \*별안간 기온이 급강하하더니 <sup>새로운 사건 발생 암시</sup> 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쳤다.  
▶ 갑작스럽게 [ ]이/가 불어옴.

(나) 수남이네 주인 영감님도 가더니, 한참 만에 돌아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욕지거리를 했다.  
“욕시랄 놈의 바람, 무슨 끝장을 보려고 온종일 이 지랄이야.”  
아마 전선 가계 아저씨 손해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동정 삼아 그렇게 화를 내는 눈치다. 하긴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서울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손톱만큼도 반가울 리가 없겠다. 바람의 의미를, 간판이 날아가는 \*횡액, 한없이 날아오는 먼지, 쓰레기 그것밖에 모르니까.

<sup>바람에 대한 서울 사람들의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판단 - 부정적</sup> 봄바람이 게으른 나무들에게, <sup>바람에 대한 수남이의 생각 - 자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sup> 잠든 뿌리들에게, \*생경한 꽃망울들에게 얼마나 신기한 마술을 베풀고 지나갔나를 모르니까. 봄바람이 한차례 지나고 거짓말같이 화창하고 아늑하게 갠 날, 들판이나 산등성이에 있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 바람에 대한 서울 사람과 [ ]의 생각의 차이

(다) 전화를 받은 주인 영감님이 좀 생기가 나더니 계산서를 작성해 주면서 ××상회에 20W 형광 램프 다섯 상자만 배달해 주고 오란다. 가까운 데 있는 소매상에서는 이렇게 전화 주문으로 배달까지를 부탁해 오는 수가 많다. 수남이는 자전거도 잘 타 배달이라면 문제도 없다.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유난해서 조심하느라 형광 램프 상자를 밧줄로 꼼꼼히 묶는다. <sup>불기완 분위기 조성</sup> 주인 영감님까지 묶는 걸 <sup>자신의 손해를 걱정하는 주인 영감의 계산적인 면모</sup> 거들어 주면서,

“인석야, 까불지 말고 조심해. 사고 내 가지고 누구 못할 노릇 시키지 말고.”  
오늘 장사가 좀 잘 안 돼서 그런지 <sup>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sup> 말씨가 통명스럽긴 했지만, 나쁜 말은 아닌데도 수남이는 \*고깝게 듣는다.

• 꼭 네간 놈 다칠 게 걱정이 아니라 나 손해 볼 게 겁난다는 소리로 들린다.  
▶ 수남이가 자전거를 타고 [ ]을/를 가게 됨.

(라) ××상회 주인은 니코틴이 새까맣게 달라붙은 이빨 인쪽을 드러내고 크게 하품을 한다. 돈을 빨리 안 주는 변명 같기도 하고, <sup>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sup> ‘인석야, 하루 종일 기다려 보라, 누가 돈을 호락호락 내줄 줄 아니.’ 하는 \*공갈 같기도 하다.

그러나 수남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다. \*저런 수에 넘어가 호락호락 물러가면 주인 영감님에게 야단맞는 것도 맞는 거려니와, <sup>물건 값을 받아하려는 수남이의 의지</sup> 앞으로 열 번도 넘게 헛걸음을 해야 수금을 끝 <sup>수금의 어려움을 경험으로 터득함</sup>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수남이가 물건값을 받기 위해 버팀.

(마) 소매상이라 큰돈은 안 들어와도 그동안 들어온 돈이 어렵잡아 만 원은 됨 직하다. 수남이는 비실 비실 안 나오는 웃음을 웃으며,  
“어떻게 결제 좀 해 줘쇼.”

하고 또 한 번 빌붙는다. 주인은 ‘짜아식’ 하며 또 한 번 알밤을 먹이곤 오백 원짜리, 백 원짜리 합해서 <sup>계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sup> 만 원을 세 번이나 세어 보더니 아까운 듯이 내준다.

“짜아식 끈덕지기가 꼭 \*퇴놈 같단니까, 됐어.”  
▶ 수남이가 [ ]을/를 받음.

**07** 이 글에서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주된 관심과 서술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자연을 파괴하는 삶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② 도시적인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 ③ 개성이 없는 사회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다.
- ④ 시대 변화에 따른 삶의 변화를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⑤ 동심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우려하고 있다.

**08** (가)~(마)로 보아 '바람'의 역할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 ① 새로운 사건 발생의 실마리
- ② 중심인물의 성격 변화의 계기
- ③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 ④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암시하는 소재
- ⑤ 공간적 배경의 이동을 암시하는 단서

**09** (나)로 보아 '바람'에 대한 수남이의 생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의 다양함을 알게 하는 것이다.
- ② 자연의 무서운 힘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③ 자연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는 혜택이다.
- ④ 자연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 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우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10** **중요**

(라)와 (마)에 드러나는 중심 갈등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 ①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상황에도 편히 쉬고 싶은 수남이의 내적 갈등
- ② 돈을 받아 오라는 주인 영감과 돈을 받지 못한 수남이 사이의 외적 갈등
- ③ 물건값을 주어야 하지만 수남이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은 상인의 내적 갈등
- ④ 돈을 받아 가야 하는 수남이와 쉽게 돈을 주고 싶지 않은 상인 사이의 외적 갈등
- 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수남이와 현실 적응 방법을 가르쳐려는 상인 사이의 외적 갈등

**11** **서술함**

〈보기〉는 소설의 인물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주인 영감과 ××상회 주인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전형성을 〈조건〉에 맞게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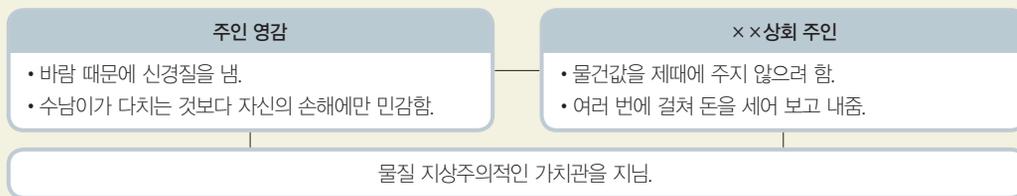
소설 속의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현실 속의 인물의 모습을 드러낸다. 작가는 인물에게 개성을 부여하면서도 전형성을 부여하여 갈등의 전개 과정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자 한다. 여기서 전형성은 신분이나 지위,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의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을 말한다.

**조건**

• 본문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을 근거로 서술할 것.

**100점 특강**

**주인 영감과 ××상회 주인의 공통점**



→ 주인 영감과 ××상회 주인은 서울 사람들에 해당하는 인물로, 모두 물질을 중시하는 도시민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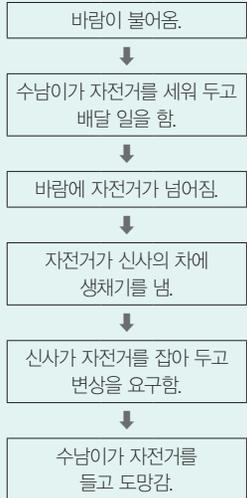
**수남이의 모습**



# 2 자전거 도둑

## 내용 연구

### 사건의 전개 과정



## 구절 풀이

- 조금 전만 ~ 누워 있다: 수남이의 자전거가 바람에 쓰러져 있음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일이 발생했음을 암시한다.
- 인마, 네놈의 ~ 들이받았던 말야: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차체에 흠집을 냈다는 사실을 밝히는 부분으로, 신사와 수남이의 본격적인 갈등을 표현한다.
- 달리면서 마치 ~ 꽤감까지 느꼈다: 수남이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가면서 죄책감보다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

## 날말 풀이

- \* 생채기: 손톱 따위로 활귀이거나 긁히어서 생긴 작은 상처.
- \* 검부러기: 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 따위의 부스러기.
- \* 질풍: 몹시 빠르고 거세게 부는 바람.
- \* 꽤감: 상쾌하고 즐거운 느낌.

(가) 바람이 지난 후 수남이는 눈을 뜨고 침을 탁 뱉는다. 입 속에 모래가 들어와 깔깔하고 목구멍이 알싸하니 아프다. 다시 자전거 쪽으로 걷는다. \*조금 전만 해도 서 있던 자전거가 누워 있다. 불길한 분위기 그래도 날아가진 않았으니 다행이다.

자전거뿐 아니라 골목의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그대로 있다. 수남이는 그것이 신기하다. 누워 있는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날렵하게 올라타 막 페달을 밟으려는데, 어디선지 고함 소리가 벽력같이 들린다. 외적 갈등의 발생 ▶ 수남이의 이/가 누워 있음.

(나) “\*인마, 네놈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내 차를 들이받았던 말야. 이런 고급차를 말야. 이런 미련한 놈, 왜 눈은 째려, 째리긴. 그러니 내 차에 흠이 안 나고 배겼겠냐. 내 차는 인마, 여자들 손톱만 살짝 닿아도 \*생채기가 나는 고급차야 인마, 알간?”

그러고는 거울처럼 티 하나 없이 번들대는 차체를 면면히 훑어보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고 환성을 질렀다. 아마 생채기를 찾아낸 모양이다.

“일은 컷다. 인마, 칠만 살짝 굶혔어도 또 모르겠는데 여봐라, 여기가 이렇게 우그러지기까지 했으니 일은 컷다, 컷어.”

신사가 덩치값도 못하게 팔짝팔짝 뛰면서 잘 봐 두라는 듯이 수남이의 얼굴을 차에다 바짝 밀어 붙였다. ▶ 수남이의 자전거가 의 차에 생채기를 냄.

(다) “아니 윤석이 이제 보니 이런 큰일 저지르고 그냥 내뺄 심사 아냐? 요런 악질 녀석 같으니라고.”

신사의 표정은 은은히 감돌던 연민이 싹 가시고 점잖게 무표정해진다.

그러고는 옆에 섰던 운전사인 듯한 남자에게,

“안 되겠네. 요런 악질 깡패 녀석하고 시비해 봤댔자 공연히 시간만 낭비니, 자네 자물쇠 하나 마련해 주게. 이 녀석 자전거걸 잡아 놓기로 하세, 언제든지 오천 원 가져와서 찾아가라고.” 신사가 수남이의 자전거를 붙잡아 두고 보상을 요구함.

▶ 수남이의 자전거를 잡아 놓고 을/를 요구하는 신사

(라)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아저씨.”

제법 또렷한 소리로 용서를 빈다. / “용서라니,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어떻게 더 용서를 해.”

“아저씨, 그러시지 말고 한 번만 봐 주셔요. 네, 아저씨.” 「」: 신사와 수남이 사이의 외적 갈등

수남이는 주머니에 들은 만 원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대고 공연히 무섭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주인 영감님께 위해 그 돈만은 죽기를 무릅쓰고 지킬 각오를 단단히 한다. 주인 영감님께 가져다줄 돈

▶ 신사에게 용서를 비는 수남이

(마) “그래라, 그래, 그까짓 거 들고 도망가렴. 뒷일은 우리가 감당할게.”

그러자 모든 구경꾼이 수남이의 편이 되어 와글와글 외쳐 댔다.

“도망가라, 어서어서 자전거를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수남이는 자기편이 되어 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수남이는 자전거를 마치 ㉠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자전거를 들고 도망가기로 작정함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깔기는 듯한 \*꽤감까지 느꼈다.

▶ 수남이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가며 을/를 느낀.

**12** (가)~(마)의 사건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사건의 발생 원인은 ‘바람’이다.
- ② 중심인물인 ‘수남이’의 갈등이 해결된다.
- ③ ‘고급차’가 갈등 해소의 실마리로 제시된다.
- ④ 새로운 인물 ‘신사’가 등장하면서 갈등이 일어난다.
- ⑤ ‘신사’와 ‘수남이’ 사이의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13** (가)~(마)에 드러난 ‘수남이’의 심리 변화 과정을 바르게 나 타낸 것은?

- ① 당황함 → 기쁨 → 원망
- ② 기쁨 → 당황함 → 미안함
- ③ 당황함 → 두려움 → 기쁨
- ④ 미안함 → 두려움 → 원망
- ⑤ 당황함 → 두려움 → 미안함

**14** (가)~(마)로 보아 알 수 있는 ‘신사’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한다.
- ② 물건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용한다.
- ③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 ④ 자신이 손해 보는 일을 무척 싫어한다.
- ⑤ 어린아이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고자 한다.

**15** ㉠이 비유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수남이의 내면적 성장을 암시한다.
- ② 수남이의 순수한 마음을 강조한다.
- ③ 수남이의 부도덕한 내면을 표현한다.
- ④ 사춘기 소년 특유의 반항적 태도를 상징한다.
- ⑤ 양심적 행동에 대한 수남이의 안도감을 의미한다.

**17** **중요** | **서술형**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수남이’의 행동을 찾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보기**  
 소설에서의 갈등은 각각의 인물들이나 집단들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갈등 관계 속에서 각각의 인물이나 집단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사건을 끌어가려고 하게 된다.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고 편한 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해 가면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건**  
 •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쓸 것.

**100점 특강**

**수남이와 신사의 갈등 양상**



→ 신사는 수남이에게 자동차의 흠집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지만, 수남이는 주인 영감에게 가져다줄 돈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돈을 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외적 갈등을 겪게 된다.

**수남이의 심리 변화**



# 2 자전거 도둑

## 내용 연구

### '누런 똥빛'의 의미

수남이의 행동을 칭찬한 주인 영감의 얼굴	도둑질을 한 형의 얼굴
------------------------	--------------

↓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마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함.

## 구절 풀이

- “잘했다, 잘했어. ~ 제법인데, 제법이야.”: 수남이가 자전거를 훔쳐 돌아왔음에도 주인 영감은 수남이의 잘못을 훈계하지 않고 자신이 손해 보지 않음에 대해 안도하면서 수남이를 칭찬하고 있다.
- 흑시 내 ~ 때문이 아닐까: 자신이 자전거를 훔치면서도 가책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형의 도둑질을 떠올리면서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하는 부분이다.
- 그날 밤 ~ 못 잊겠다: 도둑질을 해서 물건을 사온 형의 부도덕한 얼굴을 ‘누런 똥빛’으로 표현하고 있다.
- 아아, 내일도 ~ 보리밭을 보았으면: 자신의 순수한 양심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 날말 풀이

- \* 간악하게: 간사하고 악독하게.
- \* 견제해: 상대편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억눌러.
- \* 청순함: 깨끗하고 순수함.

(가) 다 듣고 난 주인 영감님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을 치면서 통쾌해한다.

● “잘했다, 잘했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수남이의 행동에 대한 칭찬 맨날 촌놈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그러고는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니 펜치를 가지고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옆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수남이의 눈에 흡사 도둑놈 두목 부도덕한 인물 같아 보여 속으로 정이 떨어진다. 주인 영감님 얼굴이 ㉠ 누런 똥빛인 것조차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습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껍다.

▶ **주인 영감의 칭찬에 정이 떨어진 수남이**

(나)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쁜 짓은 또 뭐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재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 에 나 같은 아이에게 오천 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푼려 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 때의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네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고 하였을까.

㉡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다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 말인가.

▶ **수남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함.

(다) ● 흑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수남이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 자신의 잘못이 도둑질과 같다는 점을 깨닫고 몹시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 도 치솟은 듯이 후닥닥 일어서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수남이의 눈앞에는 수갑을 차고, 순경들에게 끌려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이던 형의 얼굴이 환히 떠오른다. 그리고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견제해 주는 역할을 함. 신신당부하던 아버지의 얼굴도 떠오른다.

▶ **수남이가 형과**  을/를 떠올리며 괴로워함.

(라) 형이 돈을 많이 벌어 오면 — 이런 기대에 온 집안 식구가 하루하루를 매달려 살았다. 어느 날 밤, 형은 돌아왔다. 옷과 운동화와 과자와 고기를 한 짐이나 되게 사 가지고, 형이 정말 돈을 벌어서 별의 별 것을 다 사 가지고 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밤중이지만 동네 사람을 모아 큰 잔치를 벌이지 못해 안달을 했다. 형이 험악한 얼굴을 하고 안 된다고 했다. 잔치는커녕 동생들이 좋아서 떠드는 것도 못하게 억박질렸다.

수남이는 지금도 그날 밤 일이 생생하다. ● 그날 밤 형의 누런 똥빛 얼굴은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모습 정말로 못 잊겠다. 꼭 악몽 같다.

다음 날 형은 읍내에서 온 순경한테 수갑이 채워져 붙들려 갔다.

▶ **형이**  을/를 하여 체포됨.

(마) 소년은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어른 자기를 \*견제해 줄 어른이 순수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곳 그리웠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해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 났다.”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남이는 짐을 꾸렸다. ● 아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수남이의 내적 갈등 해소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남이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수남이의 내적 갈등 해소 말끔히 순수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곳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수남이의 내적 갈등 해소 빛났다.

▶ **수남이가**  (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함.

18 이 글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 ① 고향과 가족들을 멀리하는 삶
- ②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 소극적인 삶
- ③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삶
- ④ 자녀의 인성을 바르게 교육하지 않는 어른들의 삶
- ⑤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삶

**19** **중요** (가)~(마)에 드러나는 갈등의 전개 과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가)~(라)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하고, (마)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나)와 (다)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하며, (라), (마)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갈등의 실마리가 나타나고, (나)~(라)에서는 갈등이 복잡하게 전개되며, (마)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다.
- ④ (가)~(다)에서는 갈등의 실마리가 나타나고, (라)에서는 갈등이 복잡하게 전개되며, (마)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갈등의 실마리가 나타나고, (나), (다)에서는 갈등이 복잡하게 전개되며, (라)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하며, (마)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20 ㉠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불평과 불만에 쌓인 모습
- ②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습
- ③ 책임감이 없고 무능력한 모습
- ④ 여유 없이 일에만 매달리는 모습
- 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

21 ㉡과 같이 느낀 이유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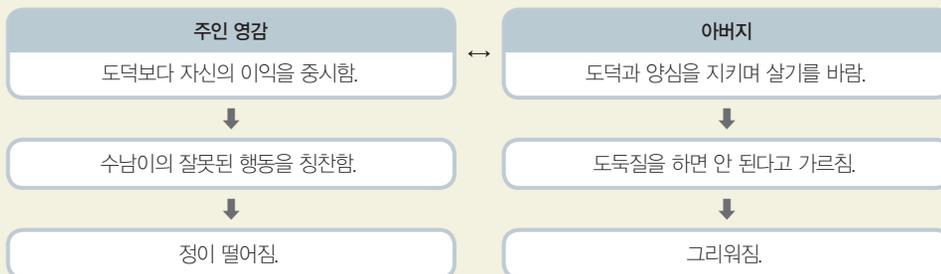
- ① 주인 영감의 돈을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 ② 자동차 수리비를 물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 ③ 형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 ④ 다른 사람의 자전거로 바꾸어 가져왔기 때문에
- ⑤ 신사에게 수리비를 준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22** **서술형** <보기>는 이 글의 등장인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 보기 ▶	
주인 영감	↔ 아버지
서울 사람	↔ 시골 사람
( ㉠ )	↔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침.
수남이가 싫어함.	↔ 수남이가 그리워함.
돈과 이익을 중시함.	↔ ( ㉡ )

100점 특강

주인 영감과 아버지의 가치관의 차이



수남이의 갈등과 갈등 해결

수남이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을 훈계하지 않고 운이 났다고 말하는 주인 영감에게 혐오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깨닫고 내적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당부하던 아버지를 떠올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며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 3 홍길동전

허균



## 지문 연구

-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에 서자로 태어나 신분의 차별을 받는 홍길동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한글 소설이다. 길동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가정 내에서 갈등을 겪는다. 출가를 한 후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빈당을 조직하여 탐관오리를 벌주고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다.
- **주제:**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 의지

### 내용 연구

'길동'과 '홍 판서'의 현실 대응 방식

길동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혁하려고 함.
----	------------------------------

↓

홍 판서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함.
------	----------------------------

### 구절 풀이

- 얼굴을 기린각에 ~ 후세에 전함: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뜻이다.
- 옛사람이 이르기 ~ 두고 말함인가?: 신분 차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말을 인용하여 서자로서 자신이 받는 차별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대감은 속으로는 ~ 꾸짖어 말하였다.: 대감은 길동의 처지에 대해 이해하지만 적서 차별의 사회 제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대감의 소극적 성격과 현실 순응적 면모가 드러나 있다.

### 낱말 풀이

- \* **천비:** 천한 신분의 여자 중.
- \* **배회하고:** 목적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 \* **대장인:** 대장이 가지던 도장.
- \* **기린각:** 중국 한(漢)나라의 무제(武帝)가 장안(長安)의 궁중에 세운 누각.
- \* **왕후장상:** 왕과 제후, 장수와 재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천생:** 천첩에게서 난 자손, 천한 출신.

(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 길동이 열한 살이 되었다. 비범한 아이인지라 누구 하나 길동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비록 \*천비의 몸을 빌려 난 자식이긴 하지만, 길동의 재주를 눈여겨본 대감 역시 길동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길동의 가슴에는 늘 원한이 맺혀 있었다. 출생이 천한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천한 신분을 한탄하고 또 한탄하였다.

▶ 길동이 자라면서 자신의 에 대해 한탄함.

(나) 어느 칠월 보름날, 길동은 밝은 달을 쳐다보며 뜰을 \*배회하고 있었다. 쓸쓸한 가을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기러기 울음소리가 마음에 외로움을 더했다. 길동의 가슴에는 절로 탄식이 일어났다.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공자, 맹자의 학문을 익힌 뒤에,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며, \*대장인을 허리춤에 차고 단(壇) 위에 높이 앉아 수많은 군사를 마음대로 지휘하며, 남쪽으로 초(楚)나라를 치고, 북쪽으로 중원(中原)을 평정하며, 서쪽으로 촉(蜀)나라를 쳐 업적을 쌓은 후에, \*얼굴을 \*기린각에 그려 빛내고 이름을 후세에 전함이 대장부의 떳떳한 일일 것이다.”

• 옛사람이 이르기 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하였는데 이는 나를 두고 말함인가?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데, 나만 홀로 그리하지 못하는구나. 내 인생은 어찌하여 이리도 기박한가?”

길동은 가슴에 차오르는 답답함을 견잡을 수가 없었다. 달빛 아래서 칼을 잡고 한바탕 춤을 추듯 몸을 날래게 움직이며 장한 기운을 다스리고 있었다.

▶ 길동이 출셋길이 막혀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함.

(다) 그때 홍 대감 역시 밝은 달빛을 즐기고자 창문을 열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다가 이런 길동의 모습을 보았다. 대감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

“밤이 이미 깊었는데 너는 무슨 흥이 있어 이려고 있느냐?”

길동이 칼을 던지고 엎드려 대답하였다.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받고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만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서러운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신세이옵니다. 하인들까지 모두 천하게 보며, 친지와 친구조차도 아무개의 \*천생이라고 이릅니다.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동은 대성통곡하였다. \*대감은 속으로는 길동이 불쌍했지만 짐짓 꾸짖어 말하였다. 만일 그 마음을 드러내서 위로하면 오히려 버릇이 없어질까 염려하였던 것이다.

▶ 길동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꾸짖는



# 3 홍길동전

## 내용 연구

### 길동의 갈등의 전개

갈등 상황
목숨을 건지기 위해 집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임.



갈등의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가에 대하여 흥 대감과 어머니의 허락을 얻음.</li> <li>• 흥 대감으로부터 호부호형을 허락받음.</li> </ul>

## 구절 풀이

- 집안에 흥한 변고가 있기에: 앞부분의 생략된 내용으로, 흥 대감의 애첩인 초남이 대감의 사랑을 받는 길동을 시기하여 특자를 시켜 길동을 죽이려고 한 사건을 말한다. 길동은 특자를 꾸짖고 죽여 위기에서 벗어난다.
- 평생에 원한이 ~ 날이 없으나: 호부호형을 하지 못해 마음속에 한이 깊다.
- 하루도 빠짐없이 ~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길동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 낱말 풀이

- \* 변고: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사고
- \* 하직: 먼 길을 떠날 때 웃어른께 작별을 고하는 것
- \* 곡절: 순조롭지 아니하게 얽힌 이렇저런 복잡한 사정이나 까닭.

(가) ㉠ 대감은 잠이 깨어 있다가 문밖에 인기척이 있어 문을 열었다. 길동이 뜰아래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본 대감이 물었다.

“밤이 이미 깊었는데 너는 무슨 까닭으로 자지 않고 이려고 있느냐?”

길동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 집안에 흥한 \* 변고가 있기에 목숨을 구하고자 집을 나가면서 대감께 \* 하직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길동이 천생이므로 아버지를 대감이라고 함.

대감이 크게 놀라는 한편 ‘반드시 무슨 \* 곡절이 있구나.’ 하고 짐작하며 말했다.

▶ 흥 대감이 길동의 을/를 눈치챈.

(나) “소인이 이제 집을 떠나려 합니다. ( ㉡ )께서는 평안히 계십시오. 다시 뵈 기약도 아득하옵니다.”

길동의 결심에 찬 말에 대감은 그저 안타깝기만 했다.

“네가 이제 집을 떠나면 어디로 가겠느냐?”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하는 처지에 어찌 따로 정한 곳이 있겠습니까? 다만 \* 평생에 원한이 가슴에 맺혀 풀어 버릴 날이 없으니, 이것이 더욱 서러울 따름입니다.”

대감은 길동을 말릴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길동의 한을 위로하였다.

“내가 너의 품은 한을 짐작하겠구나. 오늘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불러도 좋다. 다만 네가 천지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더라도, 죄를 지어 아버지와 형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만은 삼가거라. 또한 \*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부디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여러 말 하지는 않겠다. 신중하고 겸손하게 생각하도록 하라.”

대감의 말을 다 들은 길동은 아버지를 향해 크게 절을 하였다.

“( ㉢ )께서 오늘 해묵은 소원을 풀어 주시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와 부르는 일

▶ 길동이 출가를 고하고, 흥 대감이 을/를 허락함.

(다) 사정을 자세히 들은 어미 춘섬도 길동의 출가를 말릴 수 없겠다 생각하고 그저 한탄만 하였다.

“네가 이제 집을 나가더라도 잠깐 화를 피하고 나서, 어미 닳을 보아 곧 돌아오거라. 그리하여 내가 실망해 병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려무나.”

길동의 손을 부여잡고 크게 슬퍼하니, 길동이 어미를 위로하고 눈물을 무수히 흘리며 하직을 고했다.

▶ 길동이 어미에게 을/를 고함.

07 이와 같은 글에서 갈등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의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② 독자에게 흥미와 재미를 전달한다.
- ③ 해결 과정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 ④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 ⑤ 사건 전개 과정에 긴장감을 부여한다.

08 (가), (나)에서 갈등에 대한 흥 대감의 속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 ① 네 처지가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구나.
- ② 집을 떠나기로 결정하다니 원망스럽구나.
- ③ 예상했던 일이지만 슬픈 건 어쩔 수 없구나.
- ④ 한밤중에 찾아와 인사를 올리니 감동스럽구나.
- ⑤ 네 한을 아직 짐작하지 못하니 정말 미안하구나.

**중요**  
09

(나), (다)의 갈등 양상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 ②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 ③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 ④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결말을 예고한다.
- ⑤ 기존의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갈등을 예고한다.

10 **서술형** (나)에 드러난 '길동'의 심리 변화 과정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심리 변화의 원인이 드러나도록 서술할 것.

11 ㉠에서 알 수 있는 고전 소설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악과 대결해 선이 이기는 교훈적 주제
- ② 주인공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결말
- ③ 한 인물의 일생을 다루는 일대기적 구성
- ④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 장면
- ⑤ 필연적 인과 관계가 없는 우연적 사건 전개

12 사건의 흐름으로 보아 ㉡과 ㉢에 들어갈 호칭으로 적절한 것은?

	㉡	㉢
①	대감	나리
②	아버님	아버지
③	대감	아버님
④	아버님	나리
⑤	대감	주인님

100점 특강

**길동의 심리 변화**

길동은 (나)에서 급격한 심리 변화를 겪는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집을 떠나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참담해하면서 서러워하다가 흥 대감이 드디어 호부호형을 허락하자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아버지에 대해 감격한다.

**호칭의 변화와 갈등의 양상**

'대감'이라고 부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함(적서 차별).	갈등의 원인이 됨.
↓		
'아버지(아버님)'라고 부름.	가족으로 인정받음.	갈등이 해소됨.

# 3 홍길동전

## 내용 연구

### 길동의 영웅적 면모

-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림.
- 분신술을 사용함.
- 도술을 부려 군사들을 꼼짝 못하게 함.
- 임금 앞에 나타났다가 구름을 타고 홀연히 사라짐.



비범한 능력을 지닌 영웅

## 구절 풀이

- 길동이 도술을 ~ 수가 없었다.: 비현실적 요소로, 길동의 비범한 재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차라리 그 ~ 것이 낫겠구나.: 임금이 길동의 재주를 인정하고 길동을 달래어 민심을 다스리고자 한다.

## 낱말 풀이

- \* 두령: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우두머리. 또는 그를 부르는 칭호.
- \* 착취한: 직접 생산한 사람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빼앗는.
- \* 구제하게: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게.
- \* 불의한: 의롭지 못한.
- \* 탈취하며: 빼앗아 가지며.
- \* 성은: 임금의 큰 은혜.

(가) 길동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팔을 걷어붙이고 바위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 곧장 바위를 뽑아 번쩍 치켜들더니, 힘겨워하는 기색도 없이 한참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놀랍고도 신기한 모습에 도적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실로 장사로다!”

그것만으로도 도적들은 길동을 \*두령으로 인정하였다. 길동을 제일 높은 자리에 모셔 앉히고 술을 권하며, 새 두령의 등장을 소리 높여 축하했다.

▶ 길동이  무리의 두령이 됨.

(나)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 갈 즈음, 길동이 일어나 부하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무고한 백성의 재물에는 절대 손대지 않을 것이다. 각 읍의 수령과 감사들이 백성들로부터 \*착취한 재물만을 빼앗아 그것으로 불쌍한 백성들을 \*구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무리의 ㉡ 이름을 ‘활빈당’으로 정하고자 한다.”

길동의 말에 모든 도적들이 “활빈당, 활빈당!” 하고 외치며 박수를 쳐 환영했다.

▶ 무리의 이름을 ‘’ (으)로 정함.

(다) ㉢ 여덟 명의 홍길동은 전국 팔도를 누비면서, 정당하지 못한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백성을 구제했다. \*불의한 수령의 뇌물을 \*탈취하며 창고를 열어 백성을 도와주니 곳곳에 소동이 일어났다. 팔도의 군사들은 잠을 설치 가며 창고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길동이 도술을 한 번 부리면 ㉣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천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지키는 군사 모두 손이 묶인 듯 어찌지를 못했다. 팔도에서 난을 일으키면서도 ‘활빈당 장수 홍길동’이라고 버젓이 외치지만, 누가 감히 길동의 자취를 찾을 수 있겠는가?

▶ 길동이 정당하지 못한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을 구제함.

(라) 한편 길동으로 인해 매일같이 탄식하던 임금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이놈의 재주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겠다. 민심이 이렇듯 술렁이고 그 재주는 기특하니, \*차라리 그 재주를 인정하여 조정에서 쓰는 것이 낫겠구나.”

임금은 병조 판서를 내주겠다 하고 길동을 불렀다. 며칠 후 드디어 길동이 수레를 타고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타났다.

“\*성은이 망극하게도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입어 병조 판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은을 만분의 일도 갚기 어려울 것이니, 황공하기 그지없나이다.”

이 말을 남기고 ㉤ 길동은 구름을 타고서는 하늘로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그 이후로는 길동이 다시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임금 또한 홍길동을 잡으라는 명을 거두었다.

▶ 임금이 병조 판서의  을/를 내리자 길동이 감사하며 사라짐.

**13** 이 글에서 비판적으로 그려 내고 있는 당시 사회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평민이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었다.
- ② 힘이 센 사람들이 도적이 되어 활동했다.
- ③ 전국에 도적들이 들끓어 백성들을 괴롭혔다.
- ④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하는 부당한 관리들이 있었다.
- ⑤ 도술을 부리는 비범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다.

**서울형**

**14** 이 글에서 길동의 갈등 전개 과정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2가지를 쓰시오.

**15** (가)~(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길동은 관리들의 횡포에 저항하고자 했다.
- ② 길동은 백성들의 힘든 생활을 구제해 주고자 했다.
- ③ 길동은 도적들이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길동은 임금에게 인정받고 나라의 인재로 활약했다.
- ⑤ 길동은 병조 판서가 된 후에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16** 이 글에 드러나는 길동의 인물됨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적 인물이다.
- ② 비운의 운명을 가진 비극적 인물이다.
- ③ 비범한 재주를 지닌 영웅적 인물이다.
- ④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 인물이다.
- ⑤ 갈등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중재적 인물이다.

**중요**

**17** (다)에 드러나 있는 갈등의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의 내면적 갈등
- ② 개인과 집단의 갈등
- ③ 개인과 불교 윤리의 갈등
- ④ 개인과 자연 재앙의 갈등
- ⑤ 개인과 다른 개인의 갈등

**18** ㉠~㉥ 중, 고전 소설의 비현실적 특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00점 특강**

**갈등의 전개 과정**

길동은 관리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관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 당시 지배층은 정당하지 않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가 길동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그를 잡으려 애쓰지만 잡지 못한다. 이에 임금이 길동에게 병조 판서의 벼슬을 내리고 길동의 재주를 칭찬하자 길동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는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길동과 당시 지배층의 외적 갈등이 해소된 것이다.

**이 소설의 주제**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 의식

백성들을 탄압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긁어모은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 의식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사회 전반의 모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개혁 의지를 표현

# 03

## 문학과 삶의 성찰

### 학습 목표

- 작품 속의 인물이나 말하는 이의 경험과 생각을 파악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문학 작품을 읽으며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 더 알아 두기

#### • 문학의 기능

- **쾌락적 기능:** 문학 작품을 읽으며 내용에 대한 흥미와 글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
- **심미적 기능:** 문학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 등에서 미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음.
- **교훈적 기능:** 문학 작품을 읽으며 바람직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음.

### 1 문학과 삶

#### (1) 문학의 교훈적 기능

-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읽음.
-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봄.
- 문학 작품 읽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보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음.

#### (2) 문학과 삶

- 문학은 인간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창작됨.
- 문학 작품에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성찰이 담겨져 있음.
- 문학 작품 읽기가 독자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2 문학의 갈래와 인간의 성장

	시	소설	수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의 분신인 말하는 이의 목소리가 담김.</li> <li>• 말하는 이의 경험이나 성찰이 드러남.</li> <li>• 중심 내용을 비유, 상징 등을 사용해 함축적으로 표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가 창조해 낸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함.</li> <li>• 다양한 인물들의 삶이 담김.</li> <li>• 중심 내용을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함.</li> <li>• 작가의 경험이나 성찰이 드러남.</li> <li>• 중심 내용을 작가가 자신의 목소리로 고백적으로 전달함.</li> </ul>
읽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유, 상징 등의 표현 의도와 효과를 파악함.</li> <li>•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한 후, 말하는 이의 내면을 이 유와 함께 파악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 상황의 전개 양상과 인물의 행동을 파악함.</li> <li>• 인물의 삶에서 교훈이 될 만한 것을 파악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의 경험과 이에 대한 성찰의 내용을 파악함.</li> <li>• 작가의 가치관을 파악한 후 자신과 비교해 봄.</li> </ul>

### 예로 개념 확인



- (가) “저 학교에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배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애들도 너무 유치해서 사귄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연과 라디오를 스승 삼고 주경야독으로 제 수준에 맞는 진학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① (나) 그런데 아버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자전거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 내렸다가는 자전거와 함께 신작로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것 같아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한 채 떨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앉았던 안장을 움켜쥐고 내가 하늘을 서너 번은 죽히 볼렀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올라왔다.
- “달밤에 신작로 위에서 자전거 타고 혼자 있으니까 세상이 다 네 아래로 보이더냐?”
- ② (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사십대 초반이었다. 나는 내 아이가 내게 그렇게 말해 온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다. 준비되지 않은 채 몸과 마음만 들뜬 아이를 마음으로 감복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세상의 틀에 우겨 넣으려는 한, 내 중년은 아버지의 중년에 비할 수 없이 유치하다.

- 성석제, 「젊은 아버지의 추억」

### 3 문학과 성찰

#### (1) 성찰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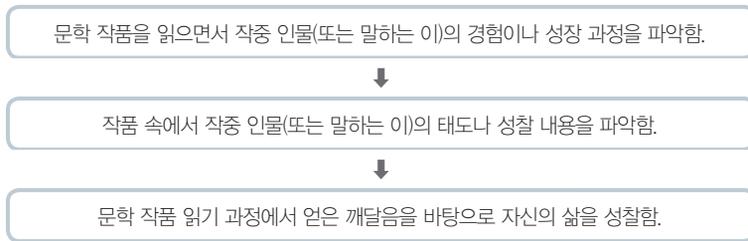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 (2) 문학과 성찰

- **작중 인물의 성찰:** 작품 속의 인물(또는 말하는 이)이 배경이 되는 현실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
- **독자의 성찰:**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 읽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

### 4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 성찰하기

#### (1)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



#### (2)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질문

문학 작품을 읽으며	문학 작품을 읽고 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중 인물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li> <li>• 작중 인물은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li> <li>• 작중 인물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li> <li>• 작가는 작품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중 인물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거나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li> <li>•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li> <li>• 나의 반응은 적절했는가?</li> <li>• 이후에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li> <li>• 작품 읽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li> </ul>

#### 더 알아 두기

##### ✦ 자아 성찰의 매개체

문학 작품에서 작품 속의 인물이나 시의 말하는 이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상황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특별한 상황이나 물건이 이러한 자아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때 인물이나 시의 말하는 이의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되는 대상을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 한다.

**예1** 현덕의 소설 「하늘은 맑건만」에서 문기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하늘을 몇몇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문기에게는 '하늘'이 자아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2** 윤동주의 시 「자화상」에서 말하는 이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미움과 연민 등을 느낀다. 이 시에서 자아 성찰의 매개체는 '우물'인 것이다.

1단계: ❶ **작품 속 인물의 경험이나 성장 과정 찾기:** 이 글은 '나'가 과거를 회상하며 쓴 수필이다. 학창 시절의 '나'는 아버지께 자신이 또래의 학생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말을 한다. 아버지는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달밤에 자전거에 앉은 채 바람 부는 언덕 위에 혼자 있게 한다. '나'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언덕 아래에서 올라온 아버지는 '나'의 자만심을 꾸짖으신다. 이처럼 글을 읽으며 '나'가 어떤 경험을 하며 성장하는지를 파악한다.

2단계: ❷ **경험이나 생각에 대한 글쓴이나 작중 인물의 깨달음 찾기:** 위의 경험을 통해 '나'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아버지의 훈육 방법에 감동한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가 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훈육 방법을 아버지와 비교하며 성찰한다. 이와 같이 글 속의 인물이 경험을 통해 어떤 점을 깨달았는지를 파악해 본다.

3단계: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 성찰하기:**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먼저 글 속의 '나'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처럼 자신도 스스로가 제일 잘났다고 자만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과정을 보면서 바람직한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 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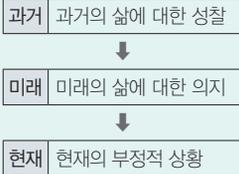
윤동주

## 지문 연구

- **해제:** 이 시는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고백하는 지식인의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다.
- **주제:** 부끄럼이 없는 삶에 대한 소망

### 내용 연구

#### 시의 시상 전개



### 구절 풀이

- 죽는 날까지 ~ 부끄럼이 없기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순수한 삶을 지향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가 드러난다.
- **앞새에 이는** ~ 괴로워했다.: 아주 작은 시련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앞새처럼 흔들렸던 지난 삶을 성찰하고 있다.
- **별을 노래하는** ~ 사랑해야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말하는 이의 순수함이 드러나 있다.
- **그리고 나한테** ~ 걸어가야겠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며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오늘 밤에도** ~ 스치운다.: 고난과 시련이 많은 어두운 현실에서도 외로이 빛나는 별처럼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낱말 풀이

- \* **앞새:** 나무의 잎사귀. 주로 문학적 표현에서 많이 쓰임.

•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존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모든 것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나 역할

걸어가야겠다.

•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어두운 현실을 의미

▶ 이/가 없는 삶에 대한 소망(과거)

▶ 자신의 을/를 걸어가겠다는 의지(미래)

▶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처럼 빛나는 양심(현재)

**0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 형식의 구성을 사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 ②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순서를 따르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대조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색채를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02** 이 시의 말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하는 이는 과거의 행복했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② 말하는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③ 말하는 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④ 말하는 이는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사는 생활을 꿈꾸고 있다.
- ⑤ 말하는 이는 바람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

**03** 이 시를 읽고 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
- ② 별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거야. 밝음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 ③ 세상에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거야.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해.
- ④ 자신의 지난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어.
- 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마음은 변치 않아야 해.

**04** ㉠과 <보기>의 밑줄 친 시어의 유사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보기 ▶**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누라서 \*굽다턴고,  
 굽을 절(節)이면 눈 속에 푸를소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원천석

\* 굽다턴고: 굽었다 하는가?  
 \* 세한고절: 한겨울의 추위도 견뎌 내는 높은 절계.

**◀ 조건 ▶**

• ‘눈’과 ‘바람’은 공통적으로 ( ) (이)라는 의미를 지닌다.’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100점 특강**

**시어의 상징적 의미**

시인은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하면서 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먼저 ‘하늘’, ‘별’과 같은 시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하늘’은 말하는 이가 부끄럼 없이 살겠다는 판단을 하는 절대적 기준이고, ‘별’은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순수하고 이상적인 삶을 의미한다. 한편, ‘바람’과 ‘밤’은 말하는 이의 현실을 표현하는 시어이다. ‘밤’은 말하는 이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의미하며, ‘바람’은 그러한 현실에서 오는 시련이나 이로 인한 말하는 이의 갈등을 상징한다. 그리고 ‘길’은 말하는 이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 또는 말하는 이의 운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시대적 상황과 시인의 태도**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작품이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현실에서 시인은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살아 있는 것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에 표현된 ‘나한테 주어진 길’은 ‘지식인으로서 빼앗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로 볼 수 있다.

# 2 동해 바다 - \* 후포에서

신경림



지문 연구

- **해제:** 이 시는 남들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현재의 삶을 반성하면서 넓은 바다처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고백한 작품이다.
- **주제:**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 남에게는 너그러워지는 삶에 대한 소망

## 내용 연구

시의 시상 전개

1연	현재 삶에 대한 말하는 이의 성찰
↓	
2연	바람직한 삶에 대한 말하는 이의 소망

## 구절 풀이

- 친구가 원수보다 ~ 커 보이는 때가 많다: 사소한 잘못마저 이해하지 못해 친구를 미워할 때가 많다는 의미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너그럽지 못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다.
- 널따란 바다처럼 ~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바다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스스로는 억센 ~ 매로 채찍질하면서: 엄격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낱말 풀이

- \* 후포: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작은 항구.
- \* 멧방석: 매통이나 멧돌을 쓸 때 밑에 까는, 짚으로 만든 방석.
- \* 잘아지고: 생각이나 성질이 대답하지 못하고 좀스러워지고.
- \* 모진: 기세가 몹시 모질고 사나운.

### \*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 한 잘못이 <sup>현재 삶에 대한 성찰</sup> 멧방석만 하게

동산만 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sup>사소한 잘못</sup>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sup>친구의 사소한 잘못이 커 보임 - 타인에게 엄격함.</sup>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sup>말하는 이가 생각하는 현재 사회 - 어지러운 세상</sup>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sup>말하는 이가 성찰하는 현재 자신의 모습</sup> 잘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sup>말하는 이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유하는 대상</sup>

▶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태도에 대한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 널따란 바다처럼 <sup>자아 성찰의 매개체</sup>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질푸른 바다처럼 <sup>말하는 이가 본받고 싶은 바다의 속성 ① - 너그러움</sup>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 스스로는 억센 <sup>말하는 이가 본받고 싶은 바다의 속성 ② - 포용력</sup>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sup>말하는 이가 본받고 싶은 바다의 속성 ③ - 엄격한 자아 성찰</sup>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 남에게는 너그러운 삶에 대한

**0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과 2연이 대칭을 이룬다.
- ② 종결형을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한다.
- ③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
- ④ 구체적인 공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 ⑤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실감 나게 전달한다.

**02** 이 시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대조적인 성격의 소재를 대비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비슷한 구조의 문장을 나란히 배열하면서 변화를 주고 있다.
- ③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뜻과는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서술형**

**03** 이 시의 말하는 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어 내용을 완성하시오.

◀ 보기 ▶  
 자신에게는 (                      ), 다른 사람에게는 (                      )  
 사람이 되자.

**04** **중요** 이 시를 읽은 독자가 자신을 성찰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를 읽으며 자신이 친구를 미워한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본다.
- ②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를 읽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용서하며 합리화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 ③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를 읽고 가족들과 함께 바다로 놀러간 즐거운 추억을 생각한다.
- ④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이 수는 없을까'를 읽으며 다른 사람을 감싸는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
- ⑤ '제 몸은 맵고 모진 때로 채찍질하면서'를 읽으며 말하는 이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생각해 본다.

**05** 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과 ㉡에 들어갈 소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말하는 이의 현재 모습	→	말하는 이가 소망하는 모습
	㉠		㉡
	가		나
①	원수		돌
②	동산		돌
③	돌		바다
④	바다		파도
⑤	파도		원수

**100점 특강**

**말하는 이의 성찰과 소망**

이 시의 1연과 2연은 의미상으로 대칭 관계에 있다. 1연에는 말하는 이의 현재 모습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다.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에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너그러워지는 현재의 모습을 돌에 비유하며 반성하고 있다. 2연에는 바람직한 삶에 대한 말하는 이의 소망이 드러난다. 자신이 소망하는 모습을 바다에 비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에는 너그러워지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하고 있다. 이때 말하는 이는 넓은 바다를 보는 것을 계기로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 이처럼 성찰의 계기가 되는 것을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 부른다.

말하는 이의 성찰	말하는 이의 소망
남들에게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너그러움.	남들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싶음.

# 3 소나기

황순원

## 지문 연구

- **해제:** 이 작품은 평화로운 시골을 배경으로,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녀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 **주제:** 소년과 소녀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 내용 연구

#### '징검다리'의 의미

한 사람밖에는 건널 수 없는 다리

소년과 소녀의 만남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재

### 구절 풀이

-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거나 한 듯이: 소녀가 서울에서 온 아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 주고 있는 표현이다.
-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녀가 움직이는 것을 갈꽃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조약돌을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는 행동을 통해 소년이 소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말말 풀이

- \* 초사: 예전에, 한문을 좀 아는 유식한 양반을 높여 이르던 말.
- \* 잠그고: 물속에 물체를 넣거나 가라앉게 하고.
- \* 징검다리: 개울이나 물이 큰 곳에 돌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 만든 다리.
- \* 요행: 뜻밖에 얻는 행운.
- \* 허탕: 아무 소득이 없는 일.
- \* 조약돌: 작고 둥글둥글한 돌.

(가)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 인물 정보(소녀) ① - 윤 초사네 증손녀 **\*초사네 증손녀(曾孫女)**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년이 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  
 ㉠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소년의 소극적인 성격이 드러남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 주었다. ▶ 소년과 소녀의

(나)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① 서울에서 생활함 ② 변이함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뻘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째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길 모양이다.」  
 ▶ 에 앉아 계속 물장난을 치는 소녀  
「; 소년이 개울을 건너지 못하고 소녀를 지켜보고 있음.

(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훅**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적극적이지 못한 소년에 대한 귀한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계절적 배경 - 청량한 가을 **정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 **소녀가 소년에게** 을/를 던진다.

(라) 이제 저쪽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음을 했다. 그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쪽 갈밭머리에서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히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비치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견혀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소녀에 대한 소년의 관심 ②  
 ▶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주머니에**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은 한적한 시골이다.
- ② 시간적 배경은 청량한 가을날이다.
- ③ 향토적이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④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모든 문장을 현재형으로 서술하여 생생한 느낌을 준다.



**02** 이 글의 소녀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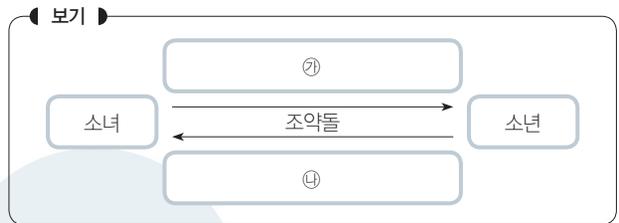
- ① 영수: 소녀는 시골 생활에 매우 익숙한 것으로 보여.
- ② 주민: 소녀가 개울물에 와서 노는 것은 서울이 그림기 때 문이야.
- ③ 재원: 소녀는 자신이 윤 초시네 증손녀로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 ④ 민지: 소녀는 소년이 기다리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징검다리에서 비키지 않는 것 같아.
- ⑤ 소영: 분홍 스웨터나 흰 목덜미와 팔을 통해 소녀가 도시 아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어.

**03** (가)와 (나)에 나타난 소년의 행동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 ① 소녀의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 ② 여유로운 마음으로 소녀를 놀리고 있다.
- ③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
- ④ 소녀의 행동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 ⑤ 상대방이 호감을 보이자 좋아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서술형**

**04** <보기>는 이 소설에서 '조약돌'을 통해 드러난 인물의 심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과 ㉡에 적절한 내용을 각각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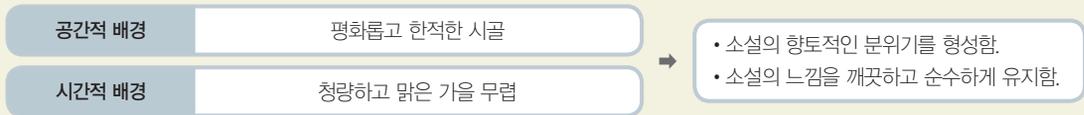
**05** ㉠으로 짐작할 수 있는 소년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활발하다.      ② 개구지다.      ③ 내성적이다.
- ④ 적극적이다.      ⑤ 무기력하다.

**100점 특강**

**이 소설의 공간적·시간적 배경**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개울에 징검다리가 놓여 있는 시골로, 평화롭고 한적한 느낌을 준다. 또한 시간적 배경은 갈꽃이 만발하고 청량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을 무렵으로, 맑고 깨끗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은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은 소설의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한편 전체적인 느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준다.



**소년과 소녀의 인물 분석**

소녀	소년
서울에서 내려온 '윤 초시네 손녀'	시골 소년
소년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징검다리를 비키지 않음.	소녀가 비켜 줄 때까지 개울둑에서 기다림.
아무 말도 없는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짐.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말없이 주머니에 넣음.
↓	↓
적극적이고 당돌한 성격임.	내성적이고 순박한 성격임.

# 3 소나기

## 내용 연구

'꽃'에 대한 소녀의 태도

소녀
소녀가 꺾어 온 꽃을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함.
↓
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 구절 풀이

- 참, 떡장구름 한 장이 ~ 보랏빛으로 변했다: 곧 소나기가 올 것임을 알려 주면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표현이다.
- 밖을 내다보던 ~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소년이 소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함을 보여 준다. 시골 생활에 익숙한 소년은 소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소녀의 불행한 미래(죽음)를 암시한다.

## 낱말 풀이

- \* 양산: 주로, 여자들이 벌을 가리기 위하여 쓰는 우산 모양의 큰 물건.
- \* 떡장구름: 먹빛같이 시꺼먼 구름.
- \* 듣는: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는.
- \* 그을: 비를 잠시 피하여 그치기를 기다릴.
- \* 잠방이: 기량이가 무릎까지 내려오게 만든 짧은 남자 흠바지.
- \* 쪽빛: 남색.

(가) 산이 가까워졌다. / 단풍잎이 눈에 따라왔다. / “아아!”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싸리꽃, 이게 도라지꽃, ……”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그런데 이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 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시 보조개를 떠올리며, 다시 소년은 꽃 한 움큼을 꺾어 왔다. 싱싱한 꽃이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그러자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

▶ 을/를 꺾어 소녀에게 주는 소년

(나) \*참, \*떡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삼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앞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붉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뜩선뜩했다. 그러자 대변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는

(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 놓은 수숫단 속을 비집어 보더니, 옆의 수숫단을 날라다 뒷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그리고는 이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수숫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됐다. 앞에 나왔던 소년은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여어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 속에서 함께 비를 피하는 소년과 소녀

(라) 소란하던 수숫잎 소리가 푹 그쳤다. 박이 멀개졌다.

수숫단 속을 벗어 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붓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와 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 왔다. 소녀가 순순히 업혔다. 건어 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 소녀를 업고 을/를 건너는 소년

## 06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경을 묘사하면서 독자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독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 ④ 주로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자연 현상이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이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07 다음의 관점에서 이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설에서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이다. 또한 작가는 배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재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거나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소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 ① '단풍잎'은 이 소설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② '떡장구름'은 이어질 내용을 암시한다.
- ③ 좁은 '수숫단 속'은 소년과 소녀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④ 물이 붙은 '도랑'은 소년과 소녀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낸다.
- ⑤ '가을 하늘'은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08 이 글에서 소녀를 대하는 소년의 태도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녀를 원망하고 있다.
- ② 소녀를 보호하려고 한다.
- ③ 소녀와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 ④ 소녀의 행동을 부담스러워한다.
- ⑤ 소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 서술형

## 09 ㉠을 통해 이 소설에서 '보랏빛'이 주는 느낌을 쓰고, 이를 바탕으로 ㉡의 역할을 추측하여 서술하시오.

(1) '보랏빛'의 느낌

(2) ㉡의 역할

## 10 <보기>는 '꽃'에 대한 소녀의 태도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가) 꽃을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함.

(다) 꽃뭉음이 망그러진 것을 상관없다고 생각함.

- ① 처음부터 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 ② 꽃뭉음이 망그러진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③ 꽃뭉음보다 소년과의 만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 ④ 꽃뭉음이 망그러졌지만 꽃은 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⑤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 꽃뭉음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 100점 특강

### 소나기의 역할

이 글에서 소나기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먼저 화창했던 날씨에 갑자기 먹장구름이 몰려오면서 주위가 어두워지는 상황에서는 위기감이 조성된다. 그리고 소년과 소녀가 좁은 수숫단 속에 함께 있게 되고, 소년이 소녀를 업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소년과 소녀를 더욱 친근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소나기는 갑자기 쏟아졌다가 금방 그치고 마는 비를 말하는데, 이는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아름답지만 짧게 끝나 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 꽃의 변화와 사건 전개

소년이 꺾어 온 꽃 중 싱싱한 꽃가지만 고르자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꽃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이는 병약한 소녀가 자신과 꽃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좁은 수숫단 안에 피해 있으면서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 하지만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꽃이 일그러지는 것은 소녀의 불행한 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녀는 소년과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 꽃의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3 소나기

## 내용 연구

### '개울물'을 통한 심리 표현

개울물이 날로 여물어 갔다.  
→ 시간이 경과함.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이 깊어짐.

## 구절 풀이

-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 지, 저 얼룩 수탉으로…….”: 소녀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소녀의 유언으로, 소년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 날말 풀이

- \* **망태기**: 물건을 담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릇.
- \* **열쩍어**: 조금 부끄러워져, '열 없어'의 사투리.
- \* **약상**: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거나 대가 끊긴 초상.
- \* **잔망스럽지**: 나이에 비해서 깜빡하고 엉뚱하지.

(가)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나들이옷으로 갈아입고 닭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는 대꾸도 없이, 아버지는 안고 있는 닭의 무게를 겨냥해 보면서,

“이만하면 될까?”

어머니가 \*망태기를 내주며,

“벌써 며칠째 ‘갈갈’ 하고 알 날 자리를 보던데요. 크진 않아도 살은 찼을 거예요.”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보았다.

“저 서당골 윤 초시 댁에 가신다. 제사상에라도 놓으시라고…….”

• “그럼 저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 수탉으로…….”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인마, 그래도 이게 실속이 있다.”

소년은 공연히 \*열쩍어, 책보를 집어던지고는 외양간으로 가, 쇠잔등을 한번 철썩 갈졌다. 쇠파리라도 잡는 체.

▶ 소녀네 집에  을/를 가져가기를 바라는 소년

(나) ①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소년은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 보았다. 갈밭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갯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쥐고 있었다.

그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 보나 어찌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 소녀와의  을/를 안타까워하는 소년

(다)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허, 참, 세상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 초시 댁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田畓)을 다 팔아 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약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남곶밭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曾孫)이라곤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 봤다더군. 지금 같아선 윤 초시네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 소녀의 죽음과



# 4 관찰아

장영희

## 지문 연구

- **해제:** 이 글은 몸이 불편한 글쓴이가 어릴 적에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희망을 얻었던 경험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한 수필이다.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를 나열하며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주제:**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선의와 너그러움

### 내용 연구

#### '나'에 대한 친구들의 행동

- '나'에게 고무줄놀이나 달리기 심판을 시킨.
- '나'에게 신발주머니나 책가방을 맡긴.
- 술래잡기를 할 때 '나'에게 어디 숨을지 미리 말해 줌.

↓  
다리가 불편해 놀이에 참여할 수 없는 '나'에 대한 친구들의 배려

### 구절 풀이

- 초등학교 때 ~ 작은 한옥이었다. 글쓴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어머니는 내가 ~ 것을 싫어 하셨다. '나'가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 목발을 옆에 두고 ~ 지나쳐 갔다. '나'가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낱말 풀이

- \* **고만고만한:** 고만한 정도로 여럿이 다 비슷비슷한.
- \* **사방치기:** 땅바닥에 여러 공간을 구분해 그려 놓고, 그 안에서 납작한 돌을 한발로 차서 다음 공간으로 옮기다가 정해진 공간에 가서는 돌을 공중으로 띄워 받아 돌아오는 놀이.
- \* **모퉁이:** 변두리나 구석진 곳.
- \* **박탈감:** 무언가를 빼앗겼다고 드는 생각이나 느낌.
- \* **리어카:** 자전거 뒤에 달거나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둘 달린 작은 수레. '손수레'로 순화함.

(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골목 안에는 <sup>고만고만한</sup> 한옥 여섯 채가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sup>과거를 회상하는 문장.</sup> 그때만 해도 한 집에 아이가 보통 네댓은 됐으므로 골목길 안에만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sup>과거의 사회적 상황</sup> 줄잡아 열 명이 넘었다. 학교가 파할 때쯤 되면 골목은 시끌벅적,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 어린 시절,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나)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sup>나와 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 없는 상황임.</sup> 모일 때쯤이면 어머니는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길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 골목길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것을 하던 '나'

(다) 딱히 놀이 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sup>\*</sup>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sup>뛰어다닐 수 없기 때문에</sup> 그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sup>같이 뛰어놀 수 없는 '나'를 배려하는 친구들의 마음 ①</sup>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sup>같이 뛰어놀 수 없는 '나'를 배려하는 친구들의 마음 ②</sup> 답답해할까 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 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sup>\*</sup>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 있는 계단 앞이 늘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sup>같이 뛰어놀 수 없는 '나'를 배려하는 친구들의 마음 ③</sup>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sup>친구들의 배려 때문에</sup>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 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었다.

▶ '나'가 을/를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준 친구들

(라)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sup>\*</sup>깨끗 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찢렁이며, <sup>\*</sup>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 있는 나를 흘깃 보고는 그냥 지나쳐 갔다. 그러더니 <sup>\*</sup>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sup>나에 대한 아저씨의 위로의 마음</sup> 내게 깨끗 두 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sup>위로와 배려의 말</sup>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끗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sup>아저씨의 말에 대한 '나'의 해석</sup>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sup>「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됨.</sup>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라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깨끗 장수 아저씨의 ''(이)라는 말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나'

**01** 이와 같은 글의 일반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이 비교적 자유롭다.
- ② 허구적 인물이 이야기를 전달한다.
- ③ 삶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드러난다.
- ④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 ⑤ 글쓴이의 경험이나 생각을 고백적으로 서술한다.

**0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나'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 ② '나'의 친구들은 '나'와 함께 노는 것을 불편해하였다.
- ③ '나'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며 외로워했다.
- ④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였다.
- ⑤ '나'의 친구들이 신발주머니나 책가방을 맡긴 것은 '나'를 배려한 것이었다.

**서술형**

**03** (나), (다)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가 글쓴이를 대문 앞 계단에 앉혀 놓은 궁극적인 이유를 서술하시오.

**04** **중요**

(라)에서 '깨끗 장수 아저씨'가 '나'에게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 ② 건강이 안 좋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 ③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 ④ 세상을 사는 데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 ⑤ 도움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05** <보기>는 이 글을 읽은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이 내용의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이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주목했어. 글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글쓴이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 ① 친구들의 놀이에 심판을 하거나 소지품을 지켰다.
- ② 공기놀이 외에는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 ③ 대문 앞 계단에 앉아 친구들이 노는 것을 구경했다.
- ④ 깨끗 장수 아저씨로부터 깨끗 두 개를 공짜로 얻었다.
- ⑤ 깨끗 장수 아저씨가 지나갈 때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

**100점 특강**

**'나'의 처지**

초등학교 때 '나'는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놀 때, 대문 앞 계단에 방석을 깔고 앉아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만 해야 했다. '나'가 친구들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공기놀이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심판을 하거나 신발주머니, 책가방을 보관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옛장수 아저씨가 골목길을 지나갈 때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런 내용을 통해 '나'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문 앞 계단에 앉아 친구들이 노는 것을 구경만 함.
- 공기놀이 외에는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음.
- 친구들의 놀이에 심판을 하거나 소지품을 지킴.
-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 있음.

다리가 불편해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가 없음.

**'깨끗 장수 아저씨의 '괜찮아'라는 말의 의미**

깨끗 장수 아저씨가 '나'에게 한 '괜찮아'라는 말은 '나'에게 '돈을 안 내고 그냥 먹어도 돼.', '다리가 불편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등의 여러 의미로 다가온다. 즉 '괜찮아'라는 말은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이었으며,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은 살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말이었다.

# 4 관찮아

## 내용 연구

### '관찮아.'라는 말에 담긴 의미

-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 용서의 말
- 격려의 말
- 나눔의 말
- 부축의 말

↓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말임.

## 구절 풀이

-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고 ~ 부축의 말, “관찮아.”: ‘관찮아.’라는 말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달리 해석되나, 그 다양한 해석들 사이에는 너그러움과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아, 그래서 ~ 희망의 말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됨을 알려 준다.

## 말뭉치 풀이

- \* **짱해진다**: 감동을 받아 가슴 등이 뻐근해지는 느낌이 든다.
- \* **부축**: 거드랑이를 붙잡아 걷는 것을 도움.
- \* **만만치**: 부담스럽거나 무서울 것이 없어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지.

(가) 오래전 학교 친구를 찾아 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 한번은 유명 가수가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허리가 36인치일 정도로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뚱뚱해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팀에 끼워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그 가수가 나서서 말했다고 한다.

“관찮아. 앤 골키퍼를 시키면 우리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를 맡아 함께 축구를 했고, 몇 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가수의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 어린 시절, 친구를 해 준 유명 가수의 일화

(나) “관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짱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 팀이 독일에겐 졌을 때 관중들은 우리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관찮아! 관찮아!”

축구 대표 팀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 준다.

① “관찮아! 관찮아!”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 위로와 의 의미를 지니는 ‘관찮아.’라는 말

(다)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감아 주겠다.”라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라는 격려의 말, “지금도 아파도 슬퍼하지 마라.”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 주는 \*부축의 말, “관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관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관찮아질 거야.”

• 아, 그래서 “관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 .(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

**06** 이와 같은 글을 쓸 때의 유의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체험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쓴다.
- ② 경험에서 느낀 감정이 잘 드러나게 표현한다.
- ③ 사건 전개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쓴다.
- ④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언어로 쓴다.
- ⑤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소중한고 가치 있는지를 되돌아본다.



**07**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리: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어.
- ② 세린: 거짓된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알게 되었어.
- ③ 준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
- ④ 민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오직 자신의 꾸준한 노력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 ⑤ 동현: 몸이 불편한데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글쓴이의 삶의 자세를 본받고 싶어졌어.

**08** 글쓴이가 (가)의 내용을 인용한 의도로 적절한 것은?

- ① 친구 찾는 방송 프로그램의 유익함을 주장하기 위해
- ②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이 주는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 ③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유명 가수의 정확한 판단력을 설명하기 위해
- ④ 유명 가수의 친구가 축구 선수로 성공하게 된 계기를 알려 주기 위해
- ⑤ 똥똥한 친구를 축구팀에 끼워 주지 않은 친구들의 행동을 비판하기 위해

**09** 다음 상황에서 사용된 ‘괜찮아!’는 어떤 의도가 담긴 말인지 (다)에서 찾아 쓰시오.

진수: 시간이 많이 지났네. 늦어서 미안해.  
정호: 괜찮아!

**10** ㉠의 의미와 통하는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②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 ③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 ④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 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100점 특강**

**수필 읽기와 성찰**

이 글은 다리가 불편한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이 잘 드러나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어머니와 친구들, 깨끗 장수 아저씨 등의 배려에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일화, 주변에서 관찰한 내용 등을 솔직하고 담담한 말투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감사 주며 배려하는 태도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러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각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선의와 사랑,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